

# “北에 있는 가족들 도와주세요”

## 좋은벗들, 새터민 기자회견...식량난 실태 증언·지원 촉구

굶주리는 북한 주민들을 위해 이번에는 새터민(탈북인)들이 눈물을 흘리며 대북지원을 호소하고 나섰다. 대북지원단체 좋은벗들(이사장 법륜)은 6월 1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북한주민 6~7월 아사를 막기 위해 식량 20만톤 지원을 촉구하는 새터민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 기자회견은 “북한 식량난 문제, 심각하지 않다”고 하는 정부 및 다른 대북단체들의 발표에 대한 반박이기도 했다.

이날 참석한 새터민 20여명과 좋은벗들 이사장 법륜 스님은 기자회견 내내 비통한 표정을 숨기지 못했다. 일부는 끊임없이 눈물을 흘리며 “북에 두고 온 가족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다”면서 “중국이나 미얀마를 돕자는 말은 있어도 북한주민들을 돕자고 대대적으로 나서지는 움직임을 없다”고 토로했다.

특히 환경복도 온성 군농촌경영위원회에서 복무한 이석철(가명·2000년 탈북)씨의 ‘북한 식량생산과 인도적 지원에 대한 소견’은 실제 내부 사정을 아는 인물의 발언이라 관심을 끌었다. 이씨는 “합복운성이 비옥했었으나 1958년 이후 계속 화학비료를 써와 농도가 산성화 되어 단위 생산량이 급감



“북에 있는 가족들에게 이 쌀이 갔으면...” 새터민들이 ‘좋은벗들’이 연 기자회견에서 북한 주민 식량지원을 호소하며 퍼포먼스를 선보이고 있다.

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북한 경작지는 논 60만 정보(헥타르), 밭 70만 정보로 총 130만 정보이며 지난해 식량 생산량은 정보 당 1.5톤을 생산했다고 가정했을 때 195만 톤, 많이 잡아도 260만 톤 정도라 설명했다. 여기에 수해피해도 10% 식량생산량이 감소했을 것이라 감안하면 최대 234만톤을 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어 탈북자인 최진이씨는 “남한 사람들은 북한에서 10%가 아사 위기라 하면 ‘식량난이 그리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 “1996년 ‘고난의행군’ 때도 북한 인구가 10% 줄었다는 점을 기억

해달라”고 부탁했다. 이어 최씨는 “남한이 북한에 식량을 지원하지 않으면 북 체제 변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북한 사회에 대한 정확한 상황정보 파악 및 공개가 필요하다”고 강력 주장했다.

또 새터민 단체를 만들어 이끌고 있는 김숙영(가명)씨는 “우리가 지금 왜 가는지, 북한 탈북자들이 모여 북한 가족을 살리기 위해 서명 운동을 하고 있으니 참여해 달라”며 “사람이 굶어죽는 것을 알면서도 돕지 않으면 그것 역시 살인과 같은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는 탈북자인 장진성씨

의 시 낭송, 북한 주민들의 실태보고와 북한 사정에 대한 발언,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에 드리는 호소문’ 발표, 희망을 전하는 식량지원 퍼포먼스 등으로 진행됐다.

이날 회견 내내 눈시울을 적신 법륜 스님은 “국내 사정이 여수선하다 보니 북한 동포들이 죽어간다는 소식을 들어도 관심이 부족하다.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는 저마다 촛불을 들지만 우리 동포가 죽어간다고 해도 촛불 한 자루 들지 않아 안타깝다”며 정부와 국민의 관심을 촉구했다.

한편 JTBC는 북한주민들은 물론 중국, 미얀마, 사이클론 피해자들의 실상을 알리기 위한 캠페인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 캠페인의 일환으로 6월 19일에는 연기자 김여진씨가 서울 봉은초등학교 6학년 교실을 찾아 일일교사로 나섰다. 이날 행사에서는 미얀마·중국에서 고아가 된 아이들과 북한 식량난으로 아사위기에 처한 아이들의 모습을 영상으로 보여주며 ‘사랑의 저금통’ 등으로 일상 생활에서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도 전했다. 아시아의 아픔을 나누기 위한 일일교사 프로그램은 이후 연기자 배종욱, 한지민 씨 등으로 이어진다.

글·사진=김강진 기자

# 석·박사 스님 등 세상 향해 “할!”

## 자성청정실천운동본부 미식고기 등 현안 관련 시국선언문

조계종자성청정실천운동본부(이하 자성청정실천운동본부)가 ‘스님들의 사회운동 참여’를 내세우며 6월 17일 조계사 산중다원에서 ‘현 시국에 대한 조계종 승려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열었다. 자성청정실천운동본부는 지난해 중앙승가대 석·박사 스님 40여명이 결성했는데, 지난 6·10 촛불집회를 시작으로 활발히 사회운동을 펼치기 위해 최근 재조직, 현재 262명의 스님이 참여하고 있는 단체다.

자성청정실천운동본부는 이날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통해 사회적 현안인 미국산 쇠고기 수입문제, 한반도 대운하, 공기업 민영화, 독단적 인사정책 등을 지적하는 ‘조계종 승려 시국선언문’을 낭독했다. 스님들은 시국선언문에서 ▲광우병 위험 쇠고기 재협상 ▲대운하 사업 중단 ▲수돗물 민영화 철회 ▲언론장악 중단 ▲교육자유화 철회 등 5개 항목을 ‘우리의 요구’라는 제목으로 강력 요청했다.

스님들은 “불교계에서 지금까지 할 말을 제때,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많이 받았다”며 “자성청정실천운동본부에서 앞으로 사회문제를 등한시 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날 시국선언에는 진관·법운·민성·보륜 스님 4인 공동대표를 비롯한 8명의 스님이 참가했다. 한편 자성청정실천운동본부는 오는 9월 6일 본부 헌관식을 병행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김강진 기자



재가연대가 창립 9주년을 맞아 불교계 각계 인사를 초청, ‘후원의 밤’ 행사를 열었다.

## 9월 맞은 재가연대 ‘후원의 밤’

### 사부대중 300여명 참석

참여불교재가연대(상임대표 김동건)가 6월 19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다시, 희망을 말하다’란 주제로 ‘창립 9월 후원의 밤’ 행사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태고종 총무원장 운산, 천태종 총무원장 정산, 관음종 총무원장 홍

파, 총화종 총무원장 남정 스님을 비롯한 300여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김동건 대표는 축사를 통해 “교단자정과 재가자 교육의 역할을 수행해 온 재가연대는 앞으로 초심으로 돌아가 명상수행, 인제육성 활성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재가불자의 참여를 이끌어 낼 것”이라고 말했다.

글·사진=노덕현 기자

## 교통지도도 종교편향?

### 수도권교통정보시스템 시청절반 누락 ‘물의’

교회·성당은 표기하면서 사찰만 속편 정보제공 서비스가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국도해양부(장관 정중환)가 수도권 시민의 빠른 길 안내와 대중교통 검색 편의를 위해 제공한 수도권교통정보시스템 ‘알고가(www.algoga.go.kr)’에는 조계사, 봉은사 등 사찰은 표기되지 않고 교회와 성당은 빠짐없이 등록되어 있다.

직접 서비스를 이용한 후 이 사실을 제보한 한 불자는 “정부 담당자가 의도적으로 사찰 표기를 누락한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지도 서비스 관리업체인 한국공간정보통신(대표이사 김인현)의 다른 제품에는 조계사, 봉은사 등 사찰 위치를 표기해 종교편향에 대한 의혹을 더했다.

한국공간정보통신 구대웅(미래컨텐츠사업본부)씨는 “1~2주전 지도 버전을 갱신하면서 실수가 있었던 것 같다. 종교시설, 건물 등 레이어가 많다 보니 누락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같은 종교시설 중 교회·성당은 표기하면서 사찰은 누락시킨 사유로는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조동섭 기자

## “묵서지편 포괄적 연구 필요”

### 불교문화재연구소 학술세미나

1차 판독 오류 수정, 전문학자의 연구 제안 등 ‘묵서지편(墨書紙片, 먹으로 쓴 종이문지)’ 연구가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

불교문화재연구소(소장 법하)는 6월 20일, ‘불국사 석가탑 묵서지편의 기초적 검토’를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묵서지편 판독 주역인 노명호 교수(서울대), 이송재 교수(서울대)를 비롯해 판독순서에 이의를 제기했던 최연식 교수(목포대)

등 묵서지편 전문가가 모두 모인 학술세미나는 논란의 종지부를 찍을 것이라는 일각의 견해와 달리 ‘묵서지편’ 연구가 이제 시작임을 알린 자리였다.

1997년 ‘묵서지편’을 직접 분리 작업한 박지선 교수(울인대)는 ‘묵서지편 보존처리와 연구에 관한 제안’에서 1966년 불국사 석가탑에서 출토 후 1997년 국립중앙박물관 수장고에서 보존실로 옮겨지기까지의 과정을 설명했다.

박 교수는 “출토 당시 ‘묵서지편’

위에 놓여있던 <보림인다라니경>조차 주목받지 못한 정도로 석가탑 출토유물의 중심이 ‘묵서지편’인 것으로 조망됐다. 불국사 석가탑 출토유물에 대한 포괄적 연구를 진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국립중앙박물관이 소장한 석가탑 출토유물 반환을 위한 조계종의 움직임도 가시화됐다.

조계종 중앙종회 사회분과 박물관 소위원회는 7월 1일 오후 2시 불교역사문화기념관 분과회의실에서 영담, 학담, 성정 스님 등이 참여하는 ‘제1차 국보 제126호 불국사 석가탑 출토유물 반환을 위한 소위원회’를 개최한다.

조동섭 기자

## 선학원 이사장 도형 스님 “이사회 안에서 문제 해결”

선학원 이사장 도형 스님은 6월 17일 임시이사회가 성원미달로 다섯 번째로 유회되자, 월오 스님 등 5인의 이사에 대해 이사회 참석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도형 스님은 “월오 스님 등 5인의 이사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소집된 4차례의 이사회를 불법적인 이사회로 날조 유포하며 의도적으로 이사회에 불참하고 있다”며 “당당하게 이사회에 참석해 문제를 해결하자”고 말했다.

김성우 기자

**진공청소·물걸레청소·구석청소 마미로봇이 한방에 다 한다!**

힘 들이지 않고 청소하는 물걸레 로봇청소기 **마미로봇**

대리점 문의 / 제품 구입 1588-7402

가격 : ₩ 275,000

www.mamirobot.co.kr

Mamirobot (주)경인메카트로닉스 NAVER 7299년 마미로봇

**발행 한 주만에 재판 인쇄**

자애로운 스승, 일타 대중사와의 인연  
해인사 장경각에서 108만배 기도 성취  
2천번 넘게 비행기를 타고 세계 방방곡곡 설법  
제주 약천사 창건  
단양 도락산 광덕사 백만불전 건립불사

**인심, 원력**

설정 스님(덕충총림 수좌)\_ 해인 선사가 평소에 실천구행했던 경험들을 책으로 펴냈다. 거기에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며 사부대중을 향하여 고구정령 토설했던 감동적이고 교훈적인 내용들로 짜여 있다.

무비 스님(전 조계종 교육원장)\_ 사람들을 그토록 감동시키던 그 법문이 이제 글로 화하고 책으로 엮여져서 세상의 빛을 보게 되어 기쁘기 그지없습니다.

고은(시인)\_ 장엄한치고 여기 가장 어려운 길이 가장 쉬운 길라잡이를 만나 환히 트였구나. 이 길 따라 가고 가면 되는구나.

**전 언론이 격찬, 격찬 !!!**

한국일보\_ 오직 단구 어디에서 그렇게 큰 힘이 솟았을까, 책에는 그 고행의 과정이 별다른 지라니 아니라는 듯 소개되어 있다. **경향신문**\_ 책에는 스님의 인심과 원력의 이야기들이 가득하다. 스님이 법문 내용을 토대로 쓴 글들이다. 그의 법문은 유쾌하면서도 불자들에게 꼭 필요한 생활법문으로 유명하다. **매일경제신문**\_ 해인 스님 법문이 시작되면 불자들은 웃음과 감동이 번갈아 교차한다. 그가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이번에 책을 한꺼번에 두 권을 낸 것은 좀 더 많은 사람에게 부처님 뜻을 전하기 위함이다. **한국경제신문**\_ 불교계에서 ‘포교제일’의 부루나 존자로 불리는 그가 두 권의 책을 한꺼번에 펴냈다. 모든 사람들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을 담아 절을 올리다 보면 108배를 넘어 140배, 150배가 된다고 한다. **세계일보**\_ 그가 펴낸 수행세이에는 눈물샘을 자극하는 이야기들이 가득하다. 인심과 효심, 용기를 불끈붙곤 쓴다. 때론 배꼽을 잡게하는 솔직한 이야기도 쏟아져 나온다. 또한 인과의 진리가 담겨 있어 현대인의 잃어버린 가치관을 되찾는 데에도 친절한 길 안내가 돼준다. **국제신문**\_ 해인 스님은 108만 배 이후 삶에 큰 변화를 느끼면서 설법 잘하는 법사로 통하고 있다. 감동을 주는 스님의 법문이 알려지면서 한 달에 보름 이상은 전국과 세계 곳곳을 다니며 초청법문을 한다. **불교신문**\_ 왜 책 제목이 인심과 원력인가. 스님은 이렇게 풀이했다. “인심은 불심(佛心)이요 원력은 보살의 마음입니다.” 스님이 책을 발간한 이유 하나다. 신도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려주기 위해서다. **현대불교신문**\_ 해인 스님이 그간 걸어온 수행의 길에서 스스로 지켜 온 인심의 근거와 그 기운의 불가사의함이 페이지마다 녹아있다. **법보신문**\_ 책은 법문의 형식을 빌렸지만 해인 스님의 수행의 향기를 진하게 담고 있다. 서문을 장식한 고은 시인의 말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모두 함께 따라가 볼 일이다.

인심 | 239P 정가 10,000원 | 원력 | 285P 정가 10,000원 |

클리어마인드 02)2198-5151